

# 董永遇仙 고사의 由來와 演變\*

유 태 규\*\*

## 〈目 次〉

1. 서 론
2. 董永遇仙 고사
  - 1) 《孝子傳》
  - 2) 《靈芝篇》
  - 3) 《搜神記》
3. 《董永變文》
  - 1) 《董永變文》 개관
  - 2) 《董永變文》의 주제사상
4. 내용상의 특징과 변화
5. 결 론

## 1. 서 론

董永은 東漢人으로 극심하게 궁핍한 가정에서 출생하였으며, 이후, 부친 喪中에 장례를 치를 비용조차 없어 자신의 몸을 팔아 장례를 치렀다. 이런 극진한 효심으로 “孝廉”이라는 벼슬에 천거 받았고, 光武帝 때 이르러 董永은 “二十四孝”<sup>1)</sup> 중의 인물로 설정되어 중국 전통문화 중의 효자의 대표적인 형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 董永은 상하 귀천을 불문하고 효자의 전형적인 인물과 감동적인 전설로 세상에 회자하기 시작하였다.

\* 이 논문은 2012년도 한국교통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한국교통대학교 중국어과 교수, tkyoo@ut.ac.kr

1) 元代의 郭居敬이 古代의 중요한 24개의 孝子故事를 輯錄하여 編成한 故事로, 董永은 8번째로 수록되어 있음.

董永 賣身葬父를 모태로 태동한 董永遇仙 전설은 대략 2천여 년 전의 漢代에서 발생한 이래 민간에서 부단히 계승, 회자하여온 유명한 4대 민간 전설<sup>2)</sup> 중의 하나이다. 이후, 董永은 중국 전통 효 문화 중의 상징적인 인물로 후한 桓帝, 靈帝 시기 武氏祠<sup>3)</sup>의 畫像 중에서 최초로 출현하였다. 이후 이 전설은 董永의 조력자로 등장하는 상대에 따라 다양한 고사를 만들어 내기 시작하였고, 또 七仙女<sup>4)</sup>라는 명칭의 등장으로 董永 전설은 더욱 풍부한 고사성을 띠게 되었다.

董永고사를 전하고 있는 초기 기록으로는 대략 네 가지의 텍스트가 있다. 첫째는 武梁祠의 畫像 및 山東, 四川 일대에서 발견된 畫像 石이다. 그런데 이 그림에 나타난 畫像은 너무 추상적인 그림을 바탕으로 “董永侍父”라고 해석하여 董永고사의 이야기 전개과정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두 번째 텍스트는 서한 시기에 劉向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孝子傳》이고, 세 번째 텍스트는 三國 시기 魏의 曹植이 지은 《靈芝篇》이며, 네 번째 텍스트는晉의 干寶가 저술한 《搜神記》를 통해 전해진다. 그리고 唐代에 이르러 재탄생한 《董永變文》의 董永고사는 이전의 기록들과 달리 의도적인 허구와 과장이 첨가되어 뚜렷하게 차별화를 이루는 특성을 구비하고 있다.

《敦煌變文》의 중요한 변화는 기존 고사들보다 다양한 변화와 선명한 주제사상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董永고사는 劉向의 《孝子圖(傳)》에 최초로 기록되었는데, 고사의 중요 내용은 董永 “賣身葬父”이다. 그러나 《敦煌變文》에 이르러 董永고사의 내용은 “賣身葬父母”로 변화되었고, 부모에 대한 董永의 간절한 효성이 더욱 강조된다.

《董永變文》은 내용상으로 미루어 불교 승려가 창작한 작품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중에 불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와 또 불교 고사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승려인 설창자가 불교를 민간에 널리 포교하는 방법으로 당시 민

2) 牛郎織女, 白蛇傳, 孟姜女哭長城, 梁山伯與祝英台를 일컫음.

3) 現 山東省, 嘉祥縣의 南쪽 武宅山에 소재.

4) 七仙女라는 명칭은 사실 董永遇仙 전설 중의 仙女에서 변화 발전한 것으로 명대 이후에 희곡 작품에 등장한다. 전하는 기록에 근거하면 七仙女에 관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즉 옥황상제의 일곱째 딸이라는 설과 옥황상제의 일곱째 딸을 일컫는 설이다. 여기서는 옥황상제의 일곱째 딸이라는 견해를 따른다.

간들이 선호하는 董永고사에 불교 고사를 적절히 첨가하고 허구적인 줄거리로 고사를 수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董永變文》은 훨씬 더 민간의 심중에 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참신한 생명력을 갖추기에 이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畫像 및 畫像石을 통해 전해지는 董永고사의 추상성과 모호함으로 인해,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후에 발생한 《孝子傳》에서 《董永變文》으로 발전하는 과정 중의 董永고사의 발생과 연변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董永變文》에 반영된 내용을 개관하여 이전의 기록들과 변화된 내용을 고찰하고, 또 작품 속에 묘사된 주제사상을 고찰하여 문학적 가치를 탐구하고자 한다.

## 2. 董永遇仙 고사

### 1) 《孝子傳》

劉向의 《孝子傳》이 최초로 董永의 전설을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이 텍스트 자체가 亡失되고 전하고 있지 않아 많은 연구자는 이 책이 후인들에 의한 위작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唐代의 저작인 《法苑珠林》에서는 《孝子傳》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여 전하고 있다.

董永은 어려서 모친을 잃고 부친과 함께 살았다. 부자는 농사에 진력하였으며, 董永은 수레에 부친을 태우고 그 뒤를 따랐다. 부친이 작고하자 스스로 부호에게 자신을 팔아 이로써 장례를 치르려 하였는데 길에서 만난 한 여인이 울면서 호소하였다: “그대의 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함께 부호 집에 당도하자 부호가 말하기를: 여인은 누구시오? 대답하여 가로되: 제 처인데 함께 부채를 상환하고자 합니다. 부호가 말하였다: 당신이 삼백 필을 짜면 보내 주겠소. 열흘 만에 일을 마치고 여인은 문을 나서면서 董永에게 말하였다: 저는 天女입니다. 천제께서 나에게 그대를 도와 부채를 상환케 하셨습니다. 말을 마치고 홀연히 사라져 행방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sup>5)</sup>

5) 道世, 《法苑珠林》, 上海古籍出版社, 1991, 卷62引. 劉向《孝子傳》: 董永者, 少偏孤, 与父居, 乃

董永이 부친의 장례를 치를 수조차 없을 정도로 곤궁하여 결국 자신의 몸을 팔아 비용을 조달하려 하자 한 天女가 董永의 조력자로 등장한다. 天女는 부자가 제시한 삼백 필을 열흘 만에 거뜬히 짜서 부채를 상환하고 나서 비로소 자신은 天帝가 파견한 신분임을 고백하고, 홀연히 종적을 감추어 극도의 긴장미를 유발하고 있다.

董永고사는 대략 西漢 말기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내용 중에는 당시의 사회상이 잘 반영되어 있다. 기원전 202년 垓河전투에서 유방은 대승을 거두고, 한 제국을 건국한 뒤 진의 붕괴를 교훈으로 삼아 관대하고 온화한 정치로 백성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어루만지려고 노력하였다. 이후 휴양생식과 文景之治, 그리고 한 武帝의 안정된 통치로 전국적으로 번영 국면이 도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西漢 宣帝 이후 외척과 환관의 발호, 그리고 관리들의 가렴주구와 혹정으로 농민들의 경제는 파탄에 직면하여 많은 농민이 노예가 되어 고향을 떠났으며, 심지어는 자식을 팔아 연명하거나 유랑하는 신세로 전락한 비참한 상황에 부딪치게 되었다.

董永의 고향이라고 전해지는 산동성의 千乘 지방은 본래 풍요로운 곳으로 어업과 양잠 및 鑄鐵 산업이 발전하였다. 董永은 대략 서한 초기에 출생하였지만, 이 고사는 서한 말기에 이르러 발생하였기 때문에 당시 농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이 반영되어 있다. 서한 말기 이곳은 황허 강의 범람으로 심각한 수재가 발생하였고, 또한 관리들의 가렴주구와 노예착취로 고향을 등지고 유랑하는 유민이 출현하게 되었다.<sup>6)</sup>

위의 인용문 중에서 “肆力田畝”와 “鹿車載父”라는 표현은 바로 생존을 위해 농사에 매달려야 하는 고통스러운 모습과 또한 董永의 부친에 대한 애뜻한 효성이 잘 묘사된 내용이다. 그리고 마침내 부친이 작고했지만 장사지낼 비용이 없어 자신을 부호에게 노비로 팔아 충당코자 한 것은 바로 당시 돈이 없으면 노예로 전락하는 가난한 농민들의 삶을 반영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肆力田畝, 鹿車載父自隨。父終, 自賣于富公, 以供喪事, 道逢一女, 呼与語云: “愿爲君妻。”遂俱至富公, 富公曰: “女爲誰?” 答曰: “永妻, 欲助償債。”公曰: “汝織三百疋, 遣汝。”一旬乃畢, 女出門謂永曰: “我天女也, 天令我助子償人債耳。”語畢, 忽然不知所在。

6) 《孝感天地董永故里》, 華夏經緯網, 2009.9.16. 5쪽 참조.

董永의 효성에 감동한 天帝의 과견으로 등장한 天女는 부호가 제안한 삼백 필을 열흘 만에 직조하고, 노비가 될 뻔한 董永을 구원하는데, 이것은 당시 이 지역에서 발달한 양잠 산업의 면모를 짐작케 함과 동시에 선과 악의 흑백 대비를 통하여 권선징악의 경계를 깨우치게 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 2) 《靈芝篇》

삼국 시기 曹植이 지은 《靈芝篇》이라는 시가 중에 董永과 神女 고사에 대한 간단한 묘사가 전해진다. 이 시가는 대략 魏 文帝 黃初 三年(A.D. 222년)에 지어졌다.

靈芝는 중원 밖에서 자라고, 朱草는 낙수 가를 덮고 있네:  
 무성한 초목이 빛을 발하고, 찬란한 빛이 신비스럽구나.  
 옛적에 虞舜이 있었는데, 부모가 어리석고 완고하였지만:  
 농사일로 효도를 극진히 하고, 仁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네.  
 백유는 나이 칠십에 색동옷을 입고 부모를 즐겁게 하였고:  
 자모의 매가 아프지 않아 구슬픈 눈물이 수건을 적셨네.  
 정란은 어려서 모친을 잃고, 의지할 데 없음이 너무 서러워:  
 나무에 양친을 새겨서 조석으로 지극한 공양을 드렸네.  
 暴子는 농묘를 보고 후회하지만, 어느 틈에 잘못을 저지르고:  
 장인이 구슬프게 우는 것은 포악함을 피해서 이름을 보존함이다.  
 董永은 가세가 빈한하였고, 부모는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여:  
 돈을 빌려 부모를 공양하였으며 품을 팔아 미식을 대접하였네.  
 빗쟁이가 문을 지키고 있어 어찌 귀가할 수 있으리오:  
 옥황상제가 아름다운 덕행에 감동하여 神女에게 기회를 주었다네.  
 오랜 세월 安居하지 못했으니 오호라! 나의 부친이시여:  
 느지막하게 저를 낳으시고, 일찍이 저를 버리셨도다.<sup>7)</sup>

7) 曹植, 《曹植集校注》, 人民文學出版社, 1998. 〈靈芝篇〉: 靈芝生王地, 朱草被洛濱; 榮華相晃耀, 光采曄若神. 古時有虞舜, 父母頑且闇; 盡孝于田壟, 烝烝不違仁. 伯瑜年七十, 彩衣以娛親; 慈母笞不痛, 嚔啼涕沾巾. 丁蘭少失母, 自傷早孤癯; 刻木當嚴親, 朝夕致三牲. 暴子見陵侮, 犯罪以亡形; 丈人爲泣血, 免戾全其名. 董永遭家貧, 父老財無遺; 舉假以供養, 佣作致甘肥. 債家填門至, 不知何用歸; 天靈感至德, 神女爲秉机. 歲月不安居, 嗚呼我皇考; 生我既已晚, 弃我何其早.

曹植은 이 시 속에서 虞舜, 伯瑜, 丁蘭, 暴子, 董永 등과 같은 여러 효자의 지극한 효도행위를 칭송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亡夫를 추모하기 위한 슬픈 심정을 묘사하고 있다. 특히 董永을 비롯하여 虞舜과 丁蘭은 “이십사효” 중에 등장하는 효자들로 모두 효도를 최상의 덕목으로 인식하고, 또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헌신했던 인물들이다. 曹植이 이처럼 그들을 추모하는 이유는 亡父에 대한 사모와 불효에 대한 반성, 그리고 효심을 이용하여 세상을 통치하려는 이상을 지녔기 때문일 것이다.

이 시기는 다른 효자 고사에 비해 특별히 董永고사를 강조하고 있어 董永고사의 來源을 고찰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후대 董永遇仙 고사의 기본적인 서사구조와 핵심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를 몇 가지로 구분하면 즉, 첫째, 董永의 家難, 둘째, 董永의 孝誠, 셋째, 天帝의 감동, 넷째, 神女の 출현이다. 이 중에 핵심적인 요소와 주제는 당연히 董永의 효성으로 曹植은 시가 중에서 董永의 효성에 맡겨 자신의 효심을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曹植은 효도에 관한 고사들을 인용하면서 문학적인 특별한 수식이나 과장 없이 사실을 인용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작자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 때문에 曹植이 묘사한 董永고사의 내용은 본래 董永고사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조식은 《孝子傳》과 달리 董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神女”를 등장시키어 사건의 의외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秦漢 시기에 이르러 불로장생에 심취하여 이를 연구하는 신선방술 사상이 만연하고, 연단 술사들이 조야에 넘쳐나게 되었다. 秦始皇이 당시 불로장생에 심취하여 術士들을 국외로 파견하여 仙藥을 구해오도록 했다는 고사는 현재의 “秦皇島”라는 명칭과 그곳의 “秦皇求仙入海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식도 신선에 관한 일에 매우 관심이 지대하여, 《升天行》《五游行》《仙人篇》《游仙詩》《陌上桑》 등과 같은 游仙詩를 많이 창작하였다. 그래서 曹植이 《靈芝篇》 중에서 董永고사를 언급한 것은 효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 의도 외에도 “董永遇仙” 고사의 신선적인 요소에 심취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의 “董永遇仙” 고사에는 이미

전형적인 “遇仙” 패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를 단계별로 구분해보면, (1) 가난한 남자와 仙女의 상봉, (2) 가난한 남자의 효성과 덕행, (3) 仙女가 상제의 명으로 강림, (4) 仙女가 董永을 위해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 이러한 패턴 구조는 “遇仙”고사 중의 은혜를 은혜로 갚는 전형적인 모델로 중간 과정에 감정적인 요소가 충분히 개입할 수 없다.<sup>8)</sup>

상기한 바와 같이 《靈芝篇》 중의 “董永遇仙” 고사는 유가적 가치관의 핵심인 효와 도가적인 신선 사상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당시 이러한 사상을 중시 인식하는 시대적 풍조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3) 《搜神記》

東晉 시기 干寶가 편집한 《搜神記》에 이르러 董永遇仙 고사는 기본적인 사건의 전말을 갖추게 된다. 이 책은 A.D. 280년에서 A.D. 289년 사이, 즉 西晉 太康 연간에서 東晉 永和 연간에 걸쳐 정리, 편찬하였는데, 대단히 귀중한 민간전설 고사를 수록하고 있다.

漢代 董永은 千乘<sup>9)</sup> 지방 사람이다. 어려서 모친을 여의고, 부친과 함께 거주하였다. 부친은 농사를 열심히 짓고, 董永은 수레에 부친을 태우고 자신은 그 뒤를 따랐다. 후에 부친이 서거하였는데 장사지낼 돈이 없었다. 이에 董永은 부득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 부친의 장례를 치르려 하였다. 주인은 董永의 지극한 효성을 알고, 그에게 일만 전을 주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董永은 집에서 삼 년 상을 마치자 주인의 빚을 갚기 위해 다시 奴役을 하러 갔다. 가는 도중 한 여인을 마주쳤는데,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董永은 그녀와 함께 주인집에 당도하였다. 주인이 董永에게 말하기를: “나는 돈을 자네에게 선물로 준 것일세.” 董永이 대답하기를: “주인의 은혜로 부친의 시신을 잘 안장하였습니다. 제가 비록 소인배이지만 꼭 성실히 일하여 주인의 은덕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부인은 무엇을 할 줄 아시오?” 董永이 대답하기를: “길쌈을 할 줄 압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반드시 네가 말한 것처럼 부인으로

8) 紀永貴, 《董永遇仙故事的產生與演變》, 百度文庫, 2012.4.7. 4쪽 참조.

9) 千乘: 漢 고조 시기에 設置한 乘郡, 지금의 山東省 博興縣 지방.

하여금 나에게 비단 백 필을 짜주도록 하라.” 그래서 董永의 처는 주인집을 위해 비단을 짜기 시작하여 열흘 만에 다 짰다. 여인이 문을 나서면서 董永에게 말하기를: “저는 상제의 織女입니다. 그대의 지극한 효심 때문에 천제께서 저에게 당신을 도와 빚을 상환하도록 한 것입니다.” 말을 마치고 하늘로 높이 날아 올라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sup>10)</sup>

干寶의 《搜神記》의 내용을 이전의 기록과 대조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최초로 董永의 출신지를 “千乘”이라고 언급한 점이다. 이것은 이 고사가 발생한 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千乘은 西漢 高祖 시기에 설치한 郡縣으로 東漢 전기에 이르러 “樂安國”으로 개명하였고, 和帝 永元 7년에는 樂安縣으로 개칭하였다. 이점은 바로 干寶가 편집한 董永고사가 西漢의 千乘에서 발생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다.<sup>11)</sup>

둘째, 등장인물의 성격과 내용이 더욱 구체적이고, 인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우선 《孝子傳》에서는 “富公”이라고 하던 명칭이 《搜神記》 중에서는 “主人”으로 바뀌어 더욱더 구체적인 인물 형상을 드러내고 있다. 고사 중에서 “主人”이 董永에게 “나는 그대에게 돈을 선물로 준 것일세.”라고 한 구절이나 “織女”에게 “부인은 무엇을 할 줄 아시오?”라고 한 내용은 훨씬 더 인간적이며, 인정적인 색채들이 가미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표현들이다. 그리고 《孝子傳》에서는 열흘 동안 “삼백 필”을 직조하게 했지만, 《搜神記》 중에서는 열흘 동안 “백 필”을 직조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수작업으로 열흘간 삼백 필을 직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열흘간 백 필을 직조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운 너무 과장된 표현이다. 그러나 열흘간 “삼백 필”과 “백 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은 《搜神記》의 작자가 의도적으

10) 干寶, 《搜神記》, 岳麓書社, 1989. “漢, 董永, 千乘人. 少偏孤, 与父居. 肆力田畝, 鹿車載自隨. 父亡, 无以葬. 乃自賣爲奴, 以供喪事. 主人知其賢, 与錢一万, 遣之. 永行三年, 喪畢, 欲還主人, 供其奴職. 道逢一婦人, 曰: “愿爲子妻.” 遂与之俱. 主人謂永曰: “以錢与君矣.” 永曰: “蒙君之惠, 父喪收藏. 永雖小人, 必欲服勤致力, 以報厚德.” 主曰: “婦人何能?” 永曰: “能織.” 主曰: “必爾者, 但令君婦爲我織嫌百匹.” 于是永妻爲主人家織, 十日而畢. 女出門, 謂永曰: “我, 天之織女也. 緣君至孝, 天帝令我助君償債耳.” 語畢, 凌空而去, 不知所在.

11) 《孝感天地董永故里》, 華夏經緯網. 2009.9.16. 1쪽 참조.

로 “백 필”로 묘사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는 아마도 董永의 불행한 신세를 동정하기 위한 인정적인 배려의 결과일 것이다. 干寶는 이전 기록에 근거하여 열흘 동안 삼백 필을 직조한 것으로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가 구태여 이를 백 필로 축소한 것은 織女와 董永이 부부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조금 더 함께 나누게 하려고 노동의 강도를 경감시킨 의도적인 설정이라 할 수 있다.

干寶는 《搜神記》에 神仙志怪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지만, 그의 의식 저변에는 효성을 중히 여기는 유가 사상이 잠재하고 있다. 織女가 “그대의 효심 때문에 천체께서 당신을 도와 빔을 상환토록 했다.”라고 董永에게 한 고백은 바로 작자가 당시 효도를 중히 여기는 사회적인 풍속을 강조하기 위하여 표현한 것이다. 또 당시 부모가 죽으면 厚葬하는 것이 자식 된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여기는 풍습이 성행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을 고려치 않고, 무리하게 빔을 내어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sup>12)</sup> 빔을 내어 장례를 치르는 내용은 《孝子傳》의 내용과 대동소이 하지만 《搜神記》에 이르러 훨씬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첫째는 主人이 董永의 효성에 감동하여 일만 전을 거저 주고, 귀가를 허락했다는 기록이다. 둘째는 董永이 삼 년 상을 치르고 나서 빔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주인집으로 간다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셋째는 主人이 董永에게 돈을 선물로 준 것이라는 답변이다. 넷째는 자신이 소인배이지만 주인의 은덕을 잊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장면이다.

董永의 효성 때문에 主人이 일만 전이라는 거액을 선물로 주었지만, 삼 년 상을 치른 뒤 빔을 갚기 위해 다시 주인집에 갔다는 표현을 통해서 당시 유가 윤리의 핵심사상인 효가 숭상되는 사회 풍조를 파악할 수 있다. 또 주인이 董永에게 일만 전을 주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搜神記》에 이르러 최초로 등장한다. 이것은 漢代의 노예 거래의 실제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한다.<sup>13)</sup> 일만 전이라는 거액을 조건 없이 선물로 주었다는 표현을 통하여 작자가 主人이 董永에 대한 효성에 감

12) 〈漢代喪葬習俗〉, 漢代, 由于統治者的極力倡導, 儒家的孝道觀念深入人心, 對當時的喪葬習俗產生了深遠而巨大的影響, 厚葬風氣盛行, 繼商周之后出現第二個厚葬高峰。當時上至皇帝, 下至平民百姓, 无不爭先恐后, 傾盡物力財力, 大肆厚葬。blog.sina.com.cn 2006. 3 .22

13) 郎淨, 《董永故事的展演及其文化結構》, 上海古籍出版社, 2005. “漢代的奴價低者一萬左右, 高者三四萬錢。”

동행은 뿐만 아니라 당시 전통적 가치의 핵심인 효성을 중히 여기는 후덕한 군자로 강조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아울러 삼 년 상을 치른 뒤 빗을 갚기 위해 다시 주인집으로 갔다는 표현을 통해 공자가 중시했던 전통적인 喪禮 문화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4)</sup>

《敦煌變文集卷八》에는 唐代의 句道興이 썼다고 전하는 《搜神記》와 《孝子傳》을 수록하고, 董永의 孝行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지만 干寶의 《搜神記》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 3. 《董永變文》

#### 1) 《董永變文》 개관

敦煌本 殘卷 《董永變文》이라는 題名은 기존의 “董永遇仙” 고사의 내용에 근거하여 擬制한 명칭으로 모두 134구, 937자로 구성된 無說有唱의 7언구의 시가 형식으로 전체 고사를 서술하고 있다. 寫本의 적지 않은 훼손으로 전체 시가의 전후 문맥이 완전하게 연결되지는 않지만, 고사의 대략적인 의미를 파악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중요한 문헌이다.

《董永變文》原文은 有說有唱 형식의 서술이었지만 현재는 唱詞 형태로만 전하고 있으며 說白 부분은 누락되어 있다.<sup>15)</sup>

唐代에 이르러 재탄생한 “董永遇仙” 고사는 《董永變文》을 통해 이전 기록보다 방대한 분량으로 재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참신하고 허구적인 내용도 많이 첨가되고, 또 작품의 사상에 있어서도 괄목할 변화를 보인다. 비록 《董永變文》 중에 내용과 문맥이 완전하게 연결되지는 않지만 전체의 대의를 파악하는데 심각한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董永變文》의 주요 내용을 다섯 단계로 개관하여 작품이

14) 《論語·陽貨》二十一條夫, “三年之喪, 天下之通喪也, 子也有三年之愛於其父母乎?”

15) 項楚, 《敦煌變文選注·上》, 中華書局, 295. 《變文集》校記: 「篇題依據故事內容擬補。……但文義多有前後不相銜接處, 疑原文有白有唱, 此前只存唱詞, 而未錄說白。」

반영하고 있는 변화와 창작 상의 특성을 탐색해 보기로 하겠다.

(1) 董永의 유년기와 賣身葬事

① 혈혈단신 董永의 슬픔과 한:

어려서부터 효성으로 조상을 받들던 董永은 겨우 열다섯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형제와 친구, 친척조차 없는 박복함에 한탄과 함께 통곡한다.

② 賣身葬事:

董永은 牙人<sup>16)</sup>, 즉 중개인을 통해 자신의 노비 몸값 흥정을 하고 葬事를 마친다:

중개인이 바로 찾아와 유혹하면서, 진실로 원하는 바를 묻고 즉시 상의한다네.

귀인께서 돈 팔십貫을 준다 하자, 董永은 일백貫 이상을 달라고 한다.

재물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와, 길일을 간택하여 부모의 장례를 치루네.<sup>17)</sup>

(2) 天女 遭遇와 夫婦 因緣:

노비 출행 중에 遭遇한 여인이 董永에게서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 그를 위로하며 자신은 옥황상제의 명을 받들고 董永과 부부의 인연을 맺은 뒤 구원하기 위해 파견된 신분임을 고백 한다:

지금 낭군께서 孝義를 행하심에 그대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하게 했오.

그 중 한 사람이 下界로 내려와, 잠시 험한 세상에 오게 되었어요.

제석궁에서 친히 처분을 내리셔, 저로 하여금 빛을 상환케 했어요.

16)《董永故事的展演及其文化結構》郎淨 上海古籍出版社 94쪽, “在唐代, 出現了各種分工的專業性牙人: 中介牲畜, 糧食, 房屋, 絹絲等等。”

17) 項楚《敦煌變文選注·上》中華書局 297-298쪽 “便有牙人來勾引, 所發善愿便商量, 長者還錢八十貫, 董永只要百千強, 領得錢物將歸舍, 揀擇好日殯耶娘。”

이 몸을 어여뻐 여겨주시면 영원히 함께 살면서, 주인을 충실히 모시겠습니다.<sup>18)</sup>

(3) 부부임무 원수와 결별:

① 董永부부는 주인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주야로 비단 천 필을 직조 한다:

여인은 무슨 재주를 지니고 있느냐? “무늬를 섞어 옷감을 잘 짠답니다!  
이에 실을 갖다 주라고 분부하자, 다만 방 두 칸이 필요하다고 한다.  
주인이 셈을 하여 계산해 보니, 빌린 재물이 천 필이 넘는다고 하네.

.....

비단을 짜는 대로 바로 재단하여, 곱게 접어 바로 상자에 포장하네.  
주인이 이 상자의 물건을 보고, 이 여인이 짠 무늬를 생각한다네.  
이 여인은 속세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태어나 성장한 사람이로다.  
비단 짜기를 이미 완료했으니 두 사람의 귀향을 허락했다네.<sup>19)</sup>

② 董永和 天女가 처음 遭遇했던 곳에서 아들을 董永에게 부탁하고 작별을 고한다:

그리고 올 때 遭遇했던 곳에서: 그대와 작별하고 다시 하늘로 돌아갑니다!

남자가 즉시 구름을 타고, 이별에 임하여 동자를 맡기며 분부한다.  
“동자를 잘 봐 주세요.” 라고 말한 뒤 董永和 이별하며 서럽게 운다.<sup>20)</sup>

(4) 董仲의 비애와 孫賓의 도움:

어린 董仲은 친구들의 조롱을 받자 董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는다. 이에 方士

18) 위의 책, 301쪽 “郎君如今行孝義, 見君行孝感天堂. 數內一人歸下界, 暫到濁惡至他鄉. 帝釋宮中親處分, 便遣妝等共田常. 不棄人微同千載, 便與相逐事阿郎.”  
19) 위의 책, 303-304쪽 “女人身上解何藝, 明机妙解織文章. 便與將絲分付了, 都來只要兩間房. 阿郎把數都計算, 計算錢物千匹強. 織得錦成便截下, 疊將來, 便入箱, 阿郎見此箱中物, 念此女人織文章. 女人不見凡間有, 生長多應住天堂. 但織綺羅數已畢, 却放二人歸本鄉.”  
20) 위의 책, 304쪽 “却到來時相逢處, 辭君却至本天堂. 娘子便即乘云去, 臨別吩咐小兒郎. 但言好看小孩子, 董永相別泪千行.”

孫賓을 찾아가 모친을 해후할 수 있는 비결을 얻는다:

마침내 집으로 가서 부친께 묻기를: “저는 어찌하여 모친이 안 계십니까?”  
 당시에 몸을 팔아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자, 감동한 선녀가 함께 빛을 상환해주었다.  
 이제 바로 모친을 떠올리니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진다.  
 동영은 아이가 모친을 찾는 것을 허락하고, 길을 떠나 곧장 孫賓 곁으로 갔다.  
 선생께서 스스로 점괘를 치면서: “이자가 분명 어머니를 찾는구나!”  
 모친이 阿耨池가로 목욕을 하러 온다 하여, 우선 나무 아래에 몸을 숨겼다.<sup>21)</sup>

(5) 모자의 재회와 환속

① 결국 선녀는 董永 부자를 상봉하였고, 孫賓의 친기누설도 알게 되었다:

이 자가 바로 동중의 모친으로 이때 겹연쩍게 아이를 바라보네.  
 어린 내 아들이 사는 곳을 알려 했을 텐데, 孫賓은 과연 뛰어난 음양사일세.<sup>22)</sup>

② 가련한 董仲을 위해 환속을 선택하고, 金瓶으로 孫賓의 신통력을 잃게 한다:

내가 아이를 거두어 키우려 하는데, 내 아이가 이곳에 사는 것이 적당치 않다네.  
 .....  
 당시 모든 것을 태워버리려 생각하고, 기록을 찾아보니 60장이나 되었다네.  
 이때부터 천상의 일은 아무도 모르게 되었고, 결국 동중만이 모친을 찾게 되었다네.<sup>23)</sup>

21) 위의 책, 306-307쪽 “遂走家中報慈父，汝等爲何沒阿娘。當時賣身葬父母，感得天女共田常。如今使即思憶母，眼中流淚數千行。董永放兒覓母去，住行直至孫豚旁。夫子將身來筮卦，此人多應覓阿娘。阿耨池邊深浴來，先于樹下隱潛藏。”  
 22) 위의 책, 307쪽, “此者便是董仲母，此時羞見小兒郎。我兒幼小爭知處，孫豚必有好陰陽。”

이상과 같이 《董永變文》의 내용을 개관하여 보았는데, 董永의 “賣身葬事”와 “遇仙夫婦”의 과정, 그리고 부부가 함께 주인을 만나 그가 요구한 비단을 직조하여 빚을 청산하고 자유인이 되기까지의 줄거리 (3)-①은 《搜神記》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董永遇仙” 고사의 줄거리는 唐代 《敦煌變文》에 이르러 뚜렷한 확장성을 갖고, 참신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唐代에 성행한 儒佛道의 종교적 영향과 개방적인 시대적 배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唐代에 재탄생한 《董永變文》의 내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작품은 기존 董永고사의 내용과 주제의 토대 위에서 구체적이고 섬세한 변화와 보완을 이루는 서술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고사 줄거리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작품은 완전한 창작이 아니라 전통의 계승과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존 고사의 계승이 구 텍스트의 완전한 모방이 아니라 아주 절묘하게 새롭고 참신한 구성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는 점이 《董永變文》의 뚜렷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2) 《董永變文》의 주제사상

### (1) 불교의 영향

變文이 발견된 막고굴과 배후도시였던 敦煌은 唐代에 불교가 흥성했던 불교문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10세기의 돈황은 2만 정도의 인구에 천 명이 넘는 승려가 거주하는 사회였다.<sup>24)</sup>

10세기 서북 변경도시에 인구 2만 명이 거주하였다면 이는 굉장히 번성했던 지역임을 알 수 있고, 천 명의 승려가 있었다는 것은 이 지역에 불교문화가 상당히

23) 위의 책, 307쪽, “阿娘擬收孩兒養, 我兒不宜住此方。將爲當時總燒却, 揀尋却得六十張。因此不知天上事, 總爲董仲竟阿娘。”

24) 竺沙雅章, 《中國佛教社會史研究》(京都, 同明舍, 1982), 477쪽.

융성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唐代의 敦煌 천불동에는 불교도들이 석굴을 굴착하였고, 불상을 彫塑하거나 불화를 그려서 신도들이 참배하도록 하였다. 후에는 승려 이외에 외국의 공주, 국왕, 대소 관리, 상인 및 여러 계층의 신도들이 이곳에서 석굴을 조성하였다.<sup>25)</sup>

상기와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당대의 敦煌은 불교문화가 극도로 번성하여, 이 지역에서 變文 說唱이 유행할 수 있는 문화적 배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變文은 대부분 佛舍에서 說唱했기 때문에 내용과 형식에서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董永變文》 역시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불교와 관련된 내용과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본문 중 여러 곳에 등장하는 多生, 下界, 阿耨池, 帝釋, 善惡 童子, 濁惡 등과 같은 표현은 불교와 직접 관련이 있는 표현들이다. 이러한 용어들이 지닌 불교적 의미와 작품 중에서 사용된 상징적 의미를 분석해 본다.

첫째, 특히 董仲과 모친이 해후하는 “阿耨池”<sup>26)</sup> 호수는 전설 중의 불교 성지로 알려졌다. 이처럼 신성한 장소에서 하늘에서 강림한 선녀와의 해후의 설정은 아마도 선녀가 지니는 神聖과 인간의 천인합일 과정을 통해 불교의 대중포교가 쉽게 하려는 차원에서 인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인도 지역에 불교 전설로 존재하던 이러한 지명이 이 작품 중에 등장한다는 것은 아마도 佛經을 잘 이해하는 승려가 說唱者의 신분으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한 포교의 일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모친과의 해후를 갈망하던 董仲이 孫賓의 계책에 따라 이곳에서 은신해 있다가 결국 재회에 성공한다는 줄거리를 통해 불교 측에서 유명한 孝行고사를 이용하여 대중의 마음에 불심을 전파하기 위한 문화적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몇 대 동안에 자매도 없고(爲緣多生无姊妹)” 중에서 인용된 “多生”이란 불교의 輪回 轉世說을 지칭하는데, 즉, 여러 생을 말하고, 六道<sup>27)</sup>를 윤회하면서

25) 張錫厚, 《敦煌文學》, 上海古籍出版社, 1980, 5쪽.

26) 阿耨池는 히말라야산의 정상에 있다고 전해지는 상상 중의 佛教 聖池로 原名은 阿耨達池임. 전설에 따르면 천하사방의 물이 모두 이곳에서 발원한다고 함.

27) 六道는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천(天)·아수라(阿修羅)·인간(人間)·축생(畜生)·아귀(餓鬼)·지옥(地獄)의 세계로 분류된다. 이러한 세계는 중생이 몸과 말과 뜻으로 어떠한

수많은 생을 받은 것을 이르는 표현이다.

셋째, 불교의 迷信에서는 인간의 善과 惡을 관장하는 “善惡 童子”가 각각 모든 중생의 善惡 만사를 기록하면 사후에 閻라대왕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한다고 전해진다.<sup>28)</sup>

넷째, 불교에서는 인간 세상을 일러 “濁惡”이라고 하는데, 인간세상에 “五濁五惡”이 있기 때문에 “濁惡”이라고 호칭하는 것이다.<sup>29)</sup>

이상과 같이 說唱者가 《董永變文》을 연출할 때 불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인용하는 것은 대중들이 무의식적으로 불교를 수용케 하려는 고도로 의도된 종교적 배경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특히 董仲이 자신의 모친을 애타게 찾는 묘사 과정은 說唱者가 “目連救母” 고사에서 모티브를 구하고 모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30)</sup>

불교 경전인 《盂蘭盆經》과 《目連經》 중에는 부처의 십대 제자인 目連이 지옥에 떨어진 자신의 모친 구원을 위해 지극한 효행을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또 《父母恩重經》 경전 중에도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이 효의 완성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처럼 불교에서도 유교 못지않게 효행을 중히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중 說唱에 종사하는 승려들은 효행을 중요하게 여기는 중국인들의 심성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효행과 관련된 고사나 표현들을 선호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董永變文》 중에는 물론 불교의 흔적이 주류를 이루지만 도교의 영향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董仲은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董永의 아들의 이름이지만 본래는 고대의 저명한 方士이다. 또 董仲을 도와 그의 모친을 찾아주는 이도 占術에 신통한 術士 孫賓이다.<sup>31)</sup>

업(業)을 지었는가에 따라서 태어난다.

28) 《敦煌變文選注·上》, 296쪽, “佛教迷信認爲有善惡二童子, 手執文簿, 分別記畧一切生人所作善惡諸事待命終后, 于閻羅王處論訟罪福報應。”

29) 위의 책 302쪽 “佛教指人間世, 因其具備五濁五惡, 故稱濁惡。”

30) 紀永貴, 《董永遇仙故事的產生与演變》 7쪽 참조.

31) 《敦煌變文選注·上》 308쪽, “敦煌遺書斯2049《古賢集》: 董仲書符去百惡, 孫賓善卜辟妖邪。”

선생께서 스스로 짐괘를 치면서: “이자가 분명 어머니를 찾는구나!”……  
 “어린 내 아들이 사는 곳을 알려 했을 텐데, 孫賓은 과연 뛰어난 음양사  
 일세. ……  
 金瓶을 가지고 下界로 돌아와 金瓶을 孫賓에게 전해 주었다네.”  
 갑자기 전방에서 天火가 나타나자 선생이 실족하고 황급히 떠나버리  
 네.<sup>32)</sup>

術士로 유명한 孫賓이 董仲을 도와 西域의 帝釋宮의 天女를 찾는다는 사실을  
 통해 당시 민간에 도교적 영향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불교계를 상징하는 天女는 孫賓의 영험함을 인정하지만, 바로 이점이 董永를 잘  
 못된 길로 인도할까 두려워 金瓶을 孫賓에게 전해 준다. 이 金瓶은 비법이 저장된  
 신비의 병이기 때문에 여기서 치솟은 天火가 孫賓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고, 결국  
 은 孫賓의 秘書를 소각시켜 천상의 일을 아무도 모르게 되었다. 帝釋 宮에서 가져  
 온 金瓶의 天火는 당시 민간에서 널리 확산한 불교의 위세를 상징하고, 天火 앞  
 서 孫賓이 혼비백산하는 모습은 불교와 도교의 대립 과정에서 도교의 세력이 쇠퇴  
 하였음을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 (2) 전통가치의 영향

《董永變文》의 도입부에는 說唱者가 대중들에게 효를 강조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나타나 있다. 이렇게 《董永變文》은 시작부터 효를 주제로 대중들에게 접  
 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것을 깊이 생각해보면, 잠시 소란스러운 일 무슨  
 상관이리?  
 대중들은 전심하여 조용한 생각으로 들으며, 당연히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기록해 두면, 두 명의 善惡 동자가 모두  
 적는다네.

32) 註) 21, 22, 23 참조.

효도로 선현을 감동을 준 董永이라는 자는 열다섯 살에 양친이 모두 작고하였네.<sup>33)</sup>

이것은 일종의 開場 白으로 소란한 대중을 경각시키면서 동시에 부모에게 勸孝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두 명의 “善惡 童子”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기록한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은 아마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대중들을 경계시키고 각성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설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董永變文》의 說唱 승려가 대중 앞에서 직접 “善惡 童子”를 거론한다면 대중의 처지에서 아무래도 자신의 부모에 대한 태도에 대해 성찰과 함께 개선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의 표현은 대중의 처지에서 보면 연민을 느낄 수밖에 없고, 동시에 그들을 자성케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董永같은 효자의 행위가 비록 조상을 감동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도 조실부모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부모에 대해 효도하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훈계를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도입부에서 “善惡 童子”의 역할을 거론하여 대중에게 勸孝를 더욱 강조하였는데, 이를 통해 당시의 사회배경과 종교적인 색채가 선명하게 묘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董永이 몸을 팔아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 노비를 살려 길을 떠났다가 조력자인 仙女를 상봉하면서 고사는 반전을 이룬다.

장례를 치르는 날 가진 것이 없어 이 몸을 팔아 부모의 장례를 치렀다오.”

“어찌 밭떼기를 팔지 않으시고요? 마음대로 하는 것은 천한 자의 짓이요.

.....

“낭자께서 좋은 일이 있는가 물으셨나요, 저는 부모께 보답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요.”

“지금 낭군께서 孝義를 행하심에 그대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을 줬다오. 그 중 한 사람이 下界로 내려와, 잠시 험한 세상에 오게 되었어요.

33)《敦煌變文選注·上》295-297쪽 “人生在世審思量，暫時吵鬧有何妨？大衆志心須靜听，先須孝順阿耶娘。好事惡事皆抄录，善惡童子每抄將。孝感先賢說董永，年登十五二親亡。”

帝釋 宮에서 친히 처분을 내리tu, 저로 하여금 빛을 상환케 했어요.  
이 몸을 어여뻐 여겨주시면 영원히 함께 살면서, 주인을 충실히 모시겠  
습니다.”<sup>34)</sup>

仙女는 董永에게서 몸을 팔아 부모의 장사를 치렀다는 말을 전해 듣고, 마음대로 몸을 파는 행위는 천한 짓이라고 일갈한다. 이 표현은 《孝經》 중의 “사람의 신체와 터럭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것을 손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sup>35)</sup>라고 한 공자의 가르침에 따른 유교적인 입장에서 孝의 중요성을 강조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 仙女의 질문에 “오로지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일 뿐이요.”라고 한 표현으로 미루어 董永은 시종일관 부모에 대한 보은의 생각으로 가득 찬 孝子の 전형으로 형상화되었다.

仙女는 순진무구한 董永의 효행에 “그대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을 줬다오.” 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효도로 선현을 감동하게 했다”는 표현에 비해 훨씬 더 효행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야기된 것이다. 그리고 董永의 효행에 감동해 天堂에서 험한 下界로 仙女를 파견하게 되었고, 帝釋 宮에서 빛을 모두 상환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한 내용으로 미루어 董永은 儒佛의 영역을 초월한 대중들의 기슭에 자리 잡은 孝子の 이상형이라 할 수 있다. 또 “어여뻐 여겨 주시면 영원히 함께 살면서 주인을 충실히 모시겠다.”는 표현은 신선의 세계에서 인간적인 감정이 풍부해진 속세의 다정한 인물 형상과 전통적 가치를 중히 여기는 변화된 모습이다.

仙女는 속세에서 董永과 함께 지내면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지만, 하늘에서 파견된 신분이기 때문에 결국 董永에게 작별을 고하기에 이른다.

남자가 즉시 구름을 타고, 이별에 임하여 동자를 맡기며 분부한다.  
“동자를 잘 봐 주세요.”라고 말한 뒤 동영과 이별하며 서럽게 운다.<sup>36)</sup>

34) 《敦煌變文選注·上》, 301쪽 “殯葬之日无錢物, 所賣當身殯耶娘。……娘子徇賄是好事, 董永爲報阿耶娘。郎君如今行孝義, 見君行孝感天堂。數內一人歸下界, 暫到濁惡至他鄉。帝釋宮中親處分, 便遣妝等共田常。不弃人微同千載, 便与相逐事阿郎。”

35) 汪受寬, 《孝經7注·開宗明義》, 上海古籍出版社, 2004, “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36) 《敦煌變文選注·上》, 304쪽 “娘子便即乘云去, 臨別吩咐小兒郎。但言好看小孩子, 董永相別泪千行。”

仙女는 하늘의 계율을 어기고 董永과의 사이에서 董仲을 낳아 기르다가 인륜을 저버리는 과정을 맞이한다. 董永에게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董仲의 후사를 부탁하면서 그녀가 인간적인 비통함에 따르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은 이미 하늘의 仙女로서가 아니라 세속화, 인간화되어버린 대중의 친근한 이상형이다. 이처럼 仙女가 세속의 삶을 통하여 인간의 풍부한 감정을 가진 인물로 변모하였기 때문에 대중들은 심중으로 더욱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고, 연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董永變文》의 說唱者인 승려는 초기에는 유교적인 입장에서 勸孝를 강조한다. 그러나 자신의 신분이 승려이기 때문에 儒佛의 영역을 넘나들며 대중들에게 은근한 수법으로 효행을 강조하는데, 이는 대중들의 심중에 불교 전파를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 4. 내용상의 특징과 변화

董永遇仙 고사가 최초로 《孝子傳》에 등장한 이래, 《靈芝篇》과 《搜神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董永變文》에 이르는 동안 고사의 성격과 내용, 그리고 주제와 시대사상 등이 부단히 변화하였다. 우선 각 작품 간에 드러난 주요한 변화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물 명칭의 변화와 새로운 인물의 출현이다.

먼저, 董永이 돈을 빌린 錢主의 명칭이 《孝子傳》: 富公, 《靈芝篇》: 債家, 《搜神記》: 主人, 《董永變文》: 阿郎으로 계속 변화하였다. 그리고 곤경에 처한 董永의 조력자로 등장하는 인물의 명칭도 계속 바뀌고 있다 즉, 《孝子傳》: 天女, 《靈芝篇》: 神女, 《搜神記》: 織女로 변화하였으며, 특히 《董永變文》에 이르러서는 女人-娘子-天女라는 명칭을 번갈아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전 기록 중에서는 董永을 도와 織造를 마치고 홀연히 사라졌지만, 《董永變文》에서는 董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 기른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아마도 董永고사가 오래

구전되면서 초기의 신비 위주의 면모에서 탈피하여 인간세계의 친근한 인물로 설정하기 위한 의도적인 각색의 결과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전의 기록 중에서는 董永이 중심인물로 주목받았지만, 《搜神記》와 《董永變文》 중에서는 “織女”의 역할이 고사의 중심적인 각색으로 변화한 것이다.

다음, 《孝子傳》과 《搜神記》에서는 선녀를 과견한 장본인이 天帝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敦煌變文》 중에는 帝釋으로 바뀌었다. 본래 帝釋은 하늘을 통솔하는 天帝이지만, 《董永變文》 중에서는 불교의 教主로 변화되어 있다. 이것은 아마 불교가 중국에서 성행한 이후, 민간의 귀에 익숙한 帝釋이라는 명칭으로 天帝를 대체한 것으로 불교의 중국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인물은 《董永變文》에 이르러 등장하는데, 즉, 牙人(노예 매매 중개인), 董仲(董永의 아들: 方士), 孫賓(董仲의 모친을 찾아주는 術士) 등과 같은 인물들이다. 牙人은 董永의 처지를 알고, 싸게 흥정하여 이문을 챙기는 거간꾼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孫賓은 모친을 그리워하는 董仲을 위해 비법을 통해 모자 해후를 도왔다가 오히려 천직을 박탈당하는 수모를 겪는 부정적인 형상으로 묘사된다.

둘째, 주요 줄거리의 변화이다.

먼저 《孝子傳》과 《搜神記》 중에서는 葬父로 되어 있지만 《董永變文》에서는 葬父母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董永과 天女の 遭遇과정은 《靈芝篇》을 제외한 모든 기록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특히 《董永變文》에 이르러 더욱더 구체적으로 묘사되면서 반전을 이룬다. 또한 《董永變文》 중에서는 天女가 董永을 도와 빚을 청산하자 부부에게 귀향을 허용하고, 부부가 이별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첨가하였다.

다음 《孝子傳》과 《靈芝篇》 중에서는 董永의 賣身 가격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搜神記》에서는 一萬錢으로, 《董永變文》에서는 一百貫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織造의 양과 시간에 대해 《靈芝篇》은 언급이 없고, 기타 기록 중에는 서로 차이를 보인다. 《孝子傳》에서는 열흘 만에 삼백 필이라고 했지만, 《搜神記》에 이르러서는 열흘 만에 백 필로, 그리고 《董永變文》 중에서는 시간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단기간에 최상급의 천 필을 직조해서 빚을 청산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셋째, 새로 첨가된 표현이다.

《董永變文》은 이전의 기록과 달리 몇 가지의 참신한 줄거리를 보완하여 고사의 긴장 미와 흥미를 유발한다. 먼저 모친이 없는 董仲을 친구들이 조롱하자 董仲이 이를 부친에게 힐문하는 것과 세 명의 선녀가 함께 목욕하는 모습, 그리고 金瓶의 天火로 孫賓을 단죄하는 내용과 董仲 모자가 극적인 해후를 하는 표현들은 모두 《董永變文》 중에서 처음 소개되는 줄거리로 고사의 갈등구조와 반전을 이루는 중요한 표현이다.

## 5. 결 론

상기한 네 종류의 기록들을 대조해 본 결과 《孝子傳》, 《靈芝篇》, 《搜神記》의 董永고사는 대체로 유교적 입장에서 董永의 효성을 선전하는데 치중하고 있고, 《董永變文》 역시 핵심적인 주제는 董永의 효성을 통한 勸孝를 선전하는 데 있다.

唐代사회를 관류하는 현저한 특징은 과감한 “개방성”을 들 수 있다. 唐代사회의 주요 사상과 철학의 이념을 형성했던 불교와 도교는 당시에 대단히 성행하였는데, 그중에서도 불교의 세력이 가장 크고 영향 또한 지대하였다. 그리고 唐代 봉건왕조의 통치철학은 유가 사상이 중심이 되었지만, 사상적으로는 불교와 도교 철학이 유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당시 통치계급에서는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민간의 유명한 孝行고사를 이용하여 대중을 교화하고, 통치에 순응케 하는 문화정책을 중시 여겼다. 이 때문에 효행을 근본으로 여기는 민간에서는 심성을 자극하는 董永을 소재로 한 孝行 고사가 아주 자연스럽게 광범위하게 회자하였다. 이것은 《秋胡變文》 중에서 “董永賣身葬父母, 天女以之酬恩(董永이 자신의 몸을 팔아 부모의 장사를 치르자 천녀가 은혜로 갚아 주었다. (敦煌變文選注: 377쪽)”라고 한 표현을 통하여 충분히 입증된다.

《董永變文》의 說唱은 이와 같은 개방된 唐代사회에서 당시 대중들의 귀에 익숙한 董永고사에 불교적인 색채를 가미하여 당시 대중들에게 勸孝할 것을 설득하였다. 따라서 이 작품 속에는 당시 사회상황과 대중들의 정서, 그리고 종교적인 상황

등이 잘 반영되어 있다. 특히 牙人, 董仲, 孫賓 등과 같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또 새로운 줄거리의 첨가로 董永고사는 참신한 생명력과 특징을 갖추게 된다. 이를 몇 단락으로 나누어 주요한 변화와 특징을 살펴본다.

첫째, 董永의 賣身葬事 고사의 확대와 강조이다.

《董永變文》 중에는 唐代의 노비매매 중개인 “牙人”을 등장시켜 董永과 買主 간에 가격 흥정을 통해 자신이 요구한 금액을 받고 거래를 성사시키고, 부모의 장사를 치르는 내용으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唐代에 존재하였던 노비매매인 “牙人”을 등장시켜 賣身고사를 연출하였기 때문에 청중으로서의 자신들의 불우한 처지와 흡사한 대비를 통해 훨씬 더 逼真한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說唱者는 董永의 賣身孝行을 강조하기 위해 “牙人”과의 흥정 과정을 첨가한 것이지만, 결국 당시 사회의 주 구성원인 농민들의 억압과 애환을 동정하고 반영한 것이다.

둘째, 董仲의 출현과 天女와 작별 과정을 통한 의도적인 虛構 과정의 첨가이다.

董仲은 董永과 仙女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董永變文》의 갈등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줄거리이다. 본래 仙女는 하늘에서 파견된 신분이기 때문에 董永의 어려운 상황을 구제하는 조력자로서 해야 할 역할만 수행하면 임무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董永과 부부 관계를 맺고 董仲을 낳아 기르다가 임무를 무사히 완수하고 돌연 하늘로 돌아가는 서사구조는 청중의 처지에서 보면 대단한 반전과 갈등의 구조이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仙女의 행위는 자식과 남편을 버리는 패륜의 행위이지만 고사의 전개과정에서 본다면 더욱더 청중들의 긴장과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줄거리이다.

셋째, 術士 孫賓의 계책에 따른 天女와 董仲 모자의 해후 과정을 통한 해피엔딩 식 표현의 삽입이다.

術士 孫賓의 占卦를 통해 董仲의 모친을 찾아 해후하게 하는 과정은 당시 道教에서 행해지던 것으로 이후 민간에서 대단히 성행하게 되었다. 여기서 術士인 孫賓이 道教를 대표하는 상징이라면 仙女는 불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仙女는 孫賓이 천기를 누설하여 자신의 행적이 드러나 결국 董仲을 해후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자 “金瓶天火”로 孫賓의 서적을 소각하였는데, 이는 불교와

도교 간의 이념 대립에서 불교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術士의 도움을 받아 母子 해후를 하게 되었지만 天女가 더는 가련한 董仲을 외면하지 못하고, 환속하여 함께 살기로 결정한 것은 불교의 勸孝를 더욱 강조하기 위한 수법으로 이용된 것이다.

이상에서 분석해 본 결과 《董永變文》 중에는 儒佛道 三教의 모든 사상이 반영되어 있고, 또 상호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사회의 주요 구성원인 농민들에게 董永 賣身 및 尋母 고사는 자신들의 처지와 너무 흡사한 자신들과 또는 이웃의 삶의 역정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방편으로 동정과 관심을 두게 되었을 것이다. 尋母와 母子 해후와 같은 감동적인 人情고사는 대중의 정서를 의도한 곳으로 귀결시키기에 적절한 주제이다.

《敦煌變文》說唱者는 說唱에 귀 기울이는 청중들에게 儒佛道를 초월하는 식견과 의도적으로 허구화된 다양한 고사들을 인용하여 대중들에게 董永의 “賣身行孝” 고사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작품 중에서 특별히 효행의 덕목을 중시하였는데, 이는 당시 사회에서 효행을 중심으로 여기는 전통적 가치관에 잘 맞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통해 대중들은 董永의 효행에 더 깊은 감동과 함께 실천적인 의지를 갖추게 되고, 동시에 說唱者의 勸孝를 통해 한층 더 불교에 쉽게 접근하게 되었을 것이다.

#### 〈參考文獻〉

- 項楚, 《敦煌變文選注》, 中華書局, 2006。  
 張湧泉, 黃征 校註, 《敦煌變文校註》, 中華書局, 1997。  
 潘重規, 《敦煌變文集新書》上下, 中國文化大學中文研究所, 1983。  
 楊家駱 主編, 《敦煌變文》上下, 世界書局, 1980。  
 郎淨, 《董永故事的展演及其文化結構》, 上海古籍出版社, 2005。  
 紀永貴, 《董永遇仙故事的產生與演變》, 百度文庫。  
 白化文/周紹良, 《敦煌變文論文錄》, 明文書局, 1985。  
 竺沙雅章, 《中國佛教社會史研究》, 竺沙雅章 同明舍, 京都, 1982。

- 汪受寬,《孝經譯注·開宗明義》,上海古籍出版社,2004。
- 張錫厚,《敦煌文學》,上海古籍出版社,1980。
- 王慶菽,《敦煌文學論文集》,1986。
- 謝海平,《講史性之變文研究》,國立政治大學中國文學研究所 碩士論文,1973。
- 邱鎮京,《敦煌變問述論》,台灣商務印書館,1974。
- 顏廷亮,《敦煌文學》,甘肅人民出版社,1989。
- 顏廷亮,《敦煌文學概論》,甘肅人民出版社,1993。
- 楊西華,《唐代俗講文學變文的原創性及其與大眾需要關係之研究》,東海大學中文研究所 碩士論文。
- 蘇瑩輝,〈敦煌變文中的董永故事〉,台灣 聯合報 1963 12/23。
- 王重民,〈敦煌本董永變文跋〉,敦煌變文論文集 下冊,上海古籍出版社,1982。
- 干寶,《搜神記》,岳麓書社,1989。
- 道世,《法苑珠林》,上海古籍出版社,1991。
- 曹植,《曹植集校注》,人民文學出版社,1998。

#### 〈中文提要〉

董永的故事最早載于劉向的《孝子傳》,其次載于曹植的《靈芝篇》和干寶的《搜神記》,它們故事的主要情節是董永賣身葬父。而且各個作品的主题思想側重宣傳儒家的孝行。但是到了《董永變文》,內容卻變成了賣身葬父母,作品主要敘述董永賣身葬父,路遇下凡仙女,以身相許,男耕女織,夫妻恩愛,仙女助永還債以後,乘雲而去,最後敘寫其子董仲尋母,母子相遇。或敘事,或抒情,或問答,或說理,情真意切,十分感人。《董永變文》與其他董永行孝故事比較起來,《董永變文》很強調着賣身行孝故事。而且它的獨特的特征是很強調孝行行為,這主要原因是在當時社會上孝行很符合以孝為主的價值觀念。

关键词: 董永, 賣身葬父母, 董仲, 孫賓, 遇仙, 尋母, 勸孝

이 논문은 2012년 11월 10일에 접수되어 2012년 12월 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2년 12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